고등학교간 차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

민 경 찬 연세대 입학관리처장

1. 들어가는 말

교육부가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여러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전형방법의 하나로 소위 '무시험제도'를 여러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의 '새학교 문화창조' 안이 발표되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수행평가 등 새로운 교육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선발에서 다양한 품성과 인성, 특성과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전개된 입학제도의 개선에 관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에서 학생선발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역할과 함께 고교현장에서 사고력 중심의 교수 - 학습방법으로서의 점차적 개선을 이루어 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은 고교교육의 파행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및 대학서열화를 부추겨 왔다고 평가되어 온 점이다. 대학들이 본고사 폐지에 이어 수능 위주의 선발로 치우치게 되고, 입시기관과 언론의 수능점수 위주의 정보와 함께 수능성적이 입학지도를 위한 손쉬운 지표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선발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본인식이 시험점수, 교과성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기, 품성, 장인정신, 개성, 소양 등을 포함하고 또한 학생의 교육환경,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의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그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

대학들은 1994년부터 특별전형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며 시행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그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특히, 대학들의 다양화와 특성화 방향은 새로운 전형제도들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98학년도 연세대학교 정보특기자 전형은 일정한 수준의 정보특기를 갖춘 학생은 학생부나 수능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일종의 예약입학제로서, 전공영역도 학생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98년 2월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부 성적 위주로 2000학년도부터 정원의 10%를 선발하는 '조기선발제'를 발표하였다. 다른 대학들도 특수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교재학 중에 입학을 예약하는 '입학예약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98년 7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전국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2000학년도부터 우수고교생 예약 입학제를 도입하고 특기자나 소외 학생들을 위한 무시험전형 인원을 정원의 20%~4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서울대는 2002학년부터 고교장추천제 위주의 무시험제도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발표하여 무시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서울대의 무시험제도는 2002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80% 이상을 고교장추천제로 선발하고 수능시험 성적은 최저기준으로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특별전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고교에서의 학생부에 많은 비중이 실리게 되어 고등학교들간의 학력과 교육의 질적 수준 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최근 언론이나 일반수험생들은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부에 의해 당락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고등학교간의 학력 차가 있는 현실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대학들은 고교등급화 또는 전국 고교학력고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여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무시험제도'와 '학교 차'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인식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어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먼저 무시험제도와 학교 차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학교 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 글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 차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자 한다.

2. 무시험제도의 의미

교육부가 마련한 '200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은 대입제도의 첫번째 기본원칙으로 "대입전형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학의 특성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을 실시하여 대학을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한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단의 하나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무시험전형제'의 도입·확산을 대학이 초·중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의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무시험제도를 시험이 없는 제도라 하여 수능시험도 없고 논술고사도 없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도 한다. 또한 일부 대학의 책임자들조차 2002학년도 대입제도=무시험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무시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지라고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과 교육의 목표에 따른 선택보다는 '무시험제도'를 일종의 유행(?)처럼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하는 시각이 있기도 하다.

사실, 무시험제도를 발표한 대학들마다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대학에 따라 무시험제도의 의미를 대학에서의 시험은 일체 없고 수능시험성적은 자격시험으로만

적용하는 것으로, 또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만 없다는 뜻으로, 또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방향에 따른 교과성적, 수능점수 이외의 여러 가지 비교과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시험제도는 교과성적, 수능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보다는,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철학과 방향에 따라 학생의 특성, 재능, 소양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형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학제도로 '무시험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점수로만 한줄로 세워 선발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온 점에 비춰볼 때 이제는 우리가 그 틀을 과감히 벗어나 보자는 점에 크게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시험'이라는 용어는 전형방법의 하나로서의 무시험전형으로 이해하고, 폭 넓은 의미로서의 무시험제도라는 용어는 더 적합한 표현으로 바꾸든지, 그 용어의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무시험전형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대학이 '무시험제도'를 선택한다면 또 다른 획일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중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차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2002학년도 입학전형 개선안에서 출신고교의 특성과 교육활동의 특징이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교간의 학교차이는 교과점수, 수능성적 등을 위주로 평가해서 얻을 수 있는 고교별 학력 차를 의미하는 것 같다. 특히,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고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교, 비평준화고교, 평준화고교들 사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고교들 사이의 고교간 학력차이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학생의 특성, 재능, 품성, 소양 등을 평가요소로 활용함에 따라 학생부의 비교과 내용이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고 또한 학생선발에 있어서 개인의 성취내용과 더불어 교육받은 환경이 평가요소로 도입되어 출신고교의 특성과 교육활동의 특징이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학교 차에 대한 개념은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있다.

먼저 모든 고등학교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첫째,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교간의 차이를 교과점수 위주로

만 평가하게 되는 학력 차로만 인식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둘째, 고등학교들의 설립목적과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균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2002학년도 새로운 입학전형 환경에서는 각 대학들의 교육 목표와 특성에 따른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연중 수시모집 등 대학들이 매우 다양한 전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넷째, 각 고등학교의 특성의 내용은 대학의 모집단위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이다.

다섯째, 한 개인의 능력을 단순한 교과성적, 시험점수에 의해 평가하기보다는 학생의 특성, 재능, 품성, 소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선발의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 점이다.

여섯째, 수능시험과 같은 전국단위의 평가는 서울, 지방 등 지역간 교육 환경여건의 차이 등에 의하여 점수 차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점수들의 어느 정도의 차이보다는 학생 개인의 창의성, 의지력, 목표의식 등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능력을 점수에 의한 줄 세우기로 차별화하기보다는 일정수준의 학생들은 동등한 잠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고교등급제 또는 전국 단위의 고교학력 평가를 통하여 고등학교들간의 차이를 하나의 잣대로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 등에 따른 특성과 대학의 모집단위와의 관계, 교과에 관련된 성적 이외의 전형자료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는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학교간 차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의 학교 차에 관련된 해결방안의 모색에 앞서 현 대학입학 전형은 학교 차의 문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특수목적고를 중심으로 비교내신제 문제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전형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균형과 형평성의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전형자료 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수능성적의 합격권에 들게 되는 학생들 사이는 논술고사와 면접·구술시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전형자료는 각 수험생 개인의 능력을 폭 넓게 변별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간의 학력차이(?)는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가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라도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2002학년도의 새로운 대입전형 개선안'의 특징은 특별전형의 대폭 확대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의 반영비율의 최대 53%에 이르고, 전형유형의 종류도 26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전형유형의 성격은 특기자 등 개인의 특수한 능력, 농어촌, 소년·소녀가장 등 교육환경에 따른 사회적 배려, 국가유공자, 직업군인 자녀 등 부모 등에 의한 사회기여, 취업자 등 평생교육 등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은 여러 종류의 전형유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6~10종을 선택하는 대학이 4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추천의 유형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방향이 다양화되고 모집단위별 특성을 강조하기 시작함에 따라 각 전형유형의 고유한 선발 취지에 따라 활용되는 전형요소와 선발기준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찾기 어려운 '학교 차'의 관점에서 학교생활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양한 입학전형제도의 도입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다양한 특별전형과 더불어 수능 위주, 논술 위

주, 학생부 위주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줄세우기의 방법으로 수험생 개인의 능력과 그가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의 특성과 환경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방향이다. 특히, 서류전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 등 선진 여러 나라들도 고등학교를 단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줄세우기보다는 자체 내부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개인의 능력을 균형 있게 최대로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재 몇 개 대학이 도입하고 있는 '특수목적고 특별전형' 등 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의 모집단위의 선발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별전형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별 설립목적과 특성,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환경 및 교육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그 차이점들을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각 고등학교가 본래의 교육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며,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최대로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대학 자체적인 모집단위별 각 고등학교에 관한 내부적인 평가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축적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4. 맺는 말

전통적인 관점에서 평가도구는 고등학교, 공공기관, 대학이 전형주체가 되어 각각 제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의 대학입학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중 한 가지 자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게 될 때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어 전형주체를 바꿔가며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반복적인 변화였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고교 교육의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변질되곤 하였다. 그러므로 각 전형주체들이 제공하는 평가자료들은 선발방법의 다양화와 함께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초·중등교육이 대입전형과는 독립적으로 그 본래의 교육 목표 달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교, 대학, 사회 모두가 신중한 고려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등학교간 차이에 관한 문제도 이러한 전제 아래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간의 차이는 학력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단편적이거나 획일적인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의 설립취지 등에 따른 특성과 대학의 모집단위와의 관계, 교과에 관련된 성적 이외의 전형자료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는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개념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간의 차이라는 관점보다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최대로 반영한다는 관점에서의 선발방법 등 대입전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2002학년도 대입개선안'은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선발기준의 개념도 대입전형의 다양화와 특성화의 방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사실 대학의 교육목표, 모집단위별 특성, 고유한 목적에 따른 특별전형의 형태, 다단계 전형, 자격기준, 지역할당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선발기준도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입전형제도에서의 평가의 방법과 선발기준에 대한 개념도 그동안의 공정성·객관성 일변도의 가치에서 합리성·타당성·합목적성에 의한 학생선발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각 고교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 고등학교의 설립취지와 특징,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여러 줄세우기의 개념이 선발방법뿐만이 아니라, 평가 및 선발기준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방 이후의 대입제도가 변화되어 왔지만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는 점에서 고교학력고사와 같은 과거의 문제로 돌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교육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다. 서류전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이나 선진 여러 나라들도 고등학교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세우는 일도 없으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는 그 동안 아무리 올바른 제도와 방향이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비추어 부작용의 소지만 있어도 포기해야 했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의 특성과 소양을 키워주며, 이를 통한 생산적인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Carleto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퍼지시스템학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대한수학회 이사, 한국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Fuzzy logic and its Applications to Engineering, Information Sciences and Intelligent Systems」(Kluwer Academic, 1995)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Newton's methods and Frobenius - Dieudonn theorem in nonnormable spaces"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